

##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6

### I. 서론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관되는 역사의 성격을 규명하고(3장), 역사의 현장인 삶의 터전과 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현상들을 탐구하며 그 가운데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 ( )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었다(4~6장). 이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만 현실의 부조리를 개선할 수 없는 인간의 ( )과 무지, 도덕적 ( )로 인해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7장). 이에 전도자는 역사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판단하시는 ( )에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했다(8장).

본 장에서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통제를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 )를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많은 증거를 제시해왔다(3:16~4: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

는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을 본 장에서 요청하고 있다.

## II. 본문

9장부터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최종적 ( )를 확신하며 살아갈 것과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도자는 오직 ( )을 위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아래에서 ( )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본 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❶하나님의 뜻은 심오하여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초월한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함을 강조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온전히 ( )해야 한다고 말한다. ❷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권위를 소유한다. 전도자는 인간의 역사와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할 뿐, 만물의 주인이자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본 장에서 인간의 한계와 ( )을 교차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❸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 )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전도자는 인생을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권면한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생)들을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 1.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9:1-18)

본 장에서는 외부 세계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전도자는 비관주의 혹은 허무주의에 빠져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서 주신 선물인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쁨으로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

1) 최선의 삶을 영위함(9:1-10)

본 단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드러난다. 앞장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모든 인생들에게 적극적이고 ( )의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다.

(1) 인간 세상의 모순(1-3)

①“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 )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1)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 지혜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 )를 의미한다.

②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됨(2-3)

①“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2절)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이 짝을 이루는 구조와 ‘모든’이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운명( )을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주로 죽음과 연관해서 사용되며 의역되어 ‘운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삶에 있어서 의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곤경에 내몰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3절a)

\*\*전도자는 죽음이 다른 모든 나쁜 일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전도자에게 죽음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 )이며 그 악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 )과 연결된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3절b)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혜가 아닌 악과 광기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삶의 마지막에 가는 목적지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본절은 전도자가 인간의 부패성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고 볼 수 있다.

## (2) 성도들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4-10)

①인간의 죽음의 비극성과 무차별성을 통한 살아있는 자의 복(4-6)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4절)

\*\*‘소망’은 ‘믿음’이나 ‘신뢰’를 뜻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리키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삶을 기쁨으로 즐기는 것을 뜻한다. 본 절에서 서로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두 동물을 사용해서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해 아래에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죽음 뒤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이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5절)

\*\*비록 죽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두려운 것이지만,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보다는 최소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는 살아 있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는 ( ) 상태이며, 산 자는 의식이 있기에 앞 절에서 언급한 ‘소망’을 통해 사는 동안 죽음의 사실을 숙고하고 그 숙고한 내용에 따라 삶을 평가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도자는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를 통해 인생에서 잊히는 것이 큰 비극 중 하나로 생각한다. 죽은 후에는 아무런 의식 활동, 기억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것과도 같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6절)

\*\*‘오래이니’는 ‘이미’를 뜻하는 부사로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본서, 본절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이 이미 오래 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새로운 성취를 위해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죽음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 없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몫’은 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로

서 땅이나 다양한 물건에서 나누어진 자신의 몫을 뜻한다. 본 절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해 아래의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어서 전도자는 ‘영원히’라는 표현을 통해 전도자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이 ( )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② 모든 인생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함(7-10)

㉠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7절)

\*\*\*본 절은 살아 있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유익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성경에서 음식(또는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을 풍성한 식사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음식물과 포도주는 주식으로서 인생의 ( )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다.

㉡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8절)

\*\*\*‘의복’은 보통 겉에 입는 다양한 종류의 ‘외투’에 사용되기도 하며, 단순히 어떤 것을 덮는 것에 사용되는 ‘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앞 절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배경을 생각해볼 때 단순히 의복의 색을 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이나 새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 기름’은 올리브나무의 열매에서 추출된 기름으로 구약 시대에 제사와 행사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축제와 같은 행사 때에 향기를 내는 향유로서 사용되기도 했다. 이를 통하여 축제와 같이 인생

을 기쁨으로 즐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9절)

\*\*지금까지 전도자가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것과 본 절의 차이가 있다면 ‘아내와 함께’  
즐기라는 것이다. ‘아내’는 단순히 ‘여자’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항상 ( )과  
아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혜서의 전통에 따라 ‘아내와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전도자는 부조리하며 수고로운 삶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사  
랑하는 아내와 함께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성한  
( )은 ‘헛된 평생의 날에’ 위안을 줄 수 있다.

㉕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10절)

\*\*전도자는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에 ( )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죽음 뒤에는 일, 계획, 지식, 지혜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올’  
은 ‘죽은 자가 거하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의로운 자와 악인이 죽은 후에 가  
는 곳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무덤’이나 ‘음부’로 번역된다.

\*\*\*본 단락을 통해 전도자의 세 가지 사상을 알 수 있다. 전도자는 ❶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적 교훈을 발견하고 기뻐해야 하며, ❷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 )적 태도나 게으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 ❸인간의 모든 일이 외부적 현상만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모순투성이지만,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해할 때는 반드시 ( )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시각이라고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다.

2)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9:11-12)

본 단락은 하나님 주권에 입각한 인간적 삶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은 자신의 능력과 뜻대로 되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존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지하기에 재앙의 날에 헛된 수고를 일삼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1)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11-12)

①인간의 무력함과 한계(11)

-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 )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님
-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
- ㉢( )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님
- ㉣( )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님
- ㉤( )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님
-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

\*\*본 절은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대되었던 성취나 승



리가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❶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초점을 두는 해석이다. 이에 의하면 세상에서 얻는 수고의 보상, 즉 삶의 낙을 누리는 몫이 자신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 )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❷‘시기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실망스러운 현실에 초점을 두는 해석이다. 이에 의하면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예시하는 다섯 가지 사례들을 열거하며, 모두가 시기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누구도 그것을 임의대로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②“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12)

\*\*물고기와 새가 자유롭게 다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물이나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사람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본 단락을 통해서 ❶보편적 인간의 힘, 지혜, 능력 등의 무력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를 강조해주고 있다. 그리고 ❷무지한 인간이 인생을 헛되고 어리석게 보냄으로 재앙을 당한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간섭하거나 조절될 수 없다고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 3) 지혜로운 행동의 유익(9:13-18)

본 단락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 초래하는 유익한 결과와 함께 지혜의 한계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특별히 본 단락에서는 지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양립되고 있다. ❶ 지혜의 중요성과 유익성의 선포와 ❷ 인간의 지혜에 대한 불완전성에 대한 선포이다.

#### (1) 성읍 구원 사건(13-15a)

##### ① 성읍의 위기(13-14)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함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에워싸고 치고자 할 때

\*\*\*본 절들은 지혜가 단기적으로 효력을 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예화이다. 전도자가 새롭게 발견한 지혜는 실제의 기대와 일치하지 못하는 세상의 부조리와 연결된다. 공격을 당하는 성읍과 쳐들어온 왕의 군대가 명확하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② 성읍의 구원(15a)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15a)

\*\*\*‘가난한’은 본질의 지혜자가 소유가 적고 신분이 낮음을 암시하는 단어이다. 가난한 지혜자는 그의 ( )로 성읍을 구원했다. 이는 지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성읍의 구원이 재정적 역량이나 신체적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 (2) 지혜자에 대한 무관심(15b-16)

## 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15b)

\*\*지혜자가 성읍을 건져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비애감과 ( )을 더 부각시킨다. 지혜자가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업적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②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16)

\*\*지혜의 능력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무시와 경멸을 당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도자는 지혜자의 외적 조건, 즉 가난하다는 요인으로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의 무지와 ( )을 드러내어 모든 것이 헛됨을 말하고 있다.

## (3) 우매자에 의한 선의 파괴(17-18)

## ① 인간 지혜의 한계성(17,18)

⑦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17절)

\*\*앞 절까지는 지혜자의 말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지만 본절에서부터는 강력한 왕의 군대를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그 음성의 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해 호소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⑧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18절)

\*\*\*‘죄’는 ‘목표물이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은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쌓은 많은 유익들을 가리킨다. 이는 세상에서 지혜자의 수고와 공로가 결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쉽게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부조리를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 단락은 성읍을 구원한 가난한 지혜자의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 ❶하나님을 ( )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부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 이성보다 나은 승리의 비결이 된다. ❷위급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말에 대해 업신여기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 ❸어리석고 강박한 죄인이 지혜를 거부하면 많은 선들이 파괴된다. 인간의 ( )이 들려오는 지혜를 거부하게 하고, 이는 스스로의 삶을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파괴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주시는 지혜의 유익을 누려야 한다.

\*\*\*전도자는 본 장을 통해 ❶인간의 지혜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결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❷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멸시당할 수도 있지만 성도는 ( )하고, ( )한 태도로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